



중국 지하철에 마스크 쓴 채 안면인식 요금 결제방식 도입

기사입력 2020-07-04 16:33 최종수정 2020-07-04 16:36



중국의 한 도시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얼굴인식을 통해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4일 하얼빈 신문망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일부 지하철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관련 결제방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마스크를 벗거나 교통카드를 꺼내 인식기에 접촉할 필요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허난성 정저우 당국은 지난해 12월 전체 지하철역에 안면인식 결제 방식을 도입한 바 있지만, 마스크를 쓴 채로도 얼굴인식을 통해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식별이나 음식점 결제 등에서 광범위하게 얼굴인식 기술을 쓰고 있는데, 관련 기술의 무분별한 적용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이른바 '빅 브라더 사

회'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수칙

필수 위생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 하지 않고
외출은 자제**



**3~4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



**발열, 호흡기 증상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1339, 보건소,
지역번호+120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KBS NEWS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한보경 기자 (dreambk73@gmail.com)

-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863835>
